

제127회 이사회 의사록

제안자	대표이사 장 순 호	기록자	기획예산팀장 서관수
일시	2008년 5월 21일(수) 16:30 ~ 18:00		
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로 337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회의실		
참석자	장순호, 서민웅, 신태철, 김광혁, 이경기, 엄장섭, 전원남,이춘발		
불참자			
배석자	김용대, 이병호, 이종선, 이윤희, 박종은		

소 관	부 의 사 항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인사노무팀	제412호	예비비 사용안	원안의결
양주고읍CES 프로젝트팀	제413호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자금 조달 및 장기매출채권 처리 계획안	원안의결
기획예산팀	제414호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원안접수

첨부 : 회의경위 1부. 끝.

회 의 경 위

■ 개회 선언(16:30)

의 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엑스코(EXCO)에서 제5회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우리회사 전시관 오픈 및 개막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하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 민영화방안, 감사원 공기업 감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제127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인

『예비비 사용안』 ,

『2008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자금조달 및 장기매출채권 처리 계획안』 과 보고사항인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등 총 4건을 이사님들께 통보하였으나, 공석중인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2008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은 정부의 인사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다음기회에 상정키로 하고, 이번 이사회 안건에서는 취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는 3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호 안건 : 『예비비 사용안』

의 장 : 제1호 의결안건인 『예비비 사용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이 공석으로 전원남 에너지사업본부장께서 겸직하고 계십니다. 전원남 이사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남 이사 : 『예비비 사용안』 제안 설명

의 장 : 이사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웅 이사 : 임원성과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직원특별성과급의 적용산식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으며, 차등지급 여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팀장 : 특별성과급 관련 규정은 보수규정 제15조의 5(특별성과급 지급기준)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4(성과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총지급액에 대해 50%는 일률지급하고, 50%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기 이사 : 저도 임원성과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하므로 의견이 없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급 외에 530%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장 경영

이경기 이사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미만시 지급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노사 합의에 의해 지급한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성과급은 전년 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했다거나, 목표치를 초과 달성 했다거나 했을 때 지급하는 게 타당한데, 그런 내용이 아닌 최소라인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사노무팀장 : 특별성과급 제도는 2005년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기순이익 20억 이상 달성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검토를 통해 사장 경영계약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직원들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과 일정 매출이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노력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의 장 :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530%는 어떤 의미에서는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써, 다른 기관도 모두 성과급이라고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회사 경우는 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물론 모회사와의 경상계약을 통해 일정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경상외의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 특별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사노무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지나치게 매출액 기준에 치우쳤거나, 수익성과의 연계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성과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인센티브적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제2호 안건 :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자금조달 및 장기매출채권 처리 계획안』

의 장 : 제2호 의결안건인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자금조달 및 장기매출채권 처리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원남 이사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남 이사 : [양주 고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자금조달 및 장기매출채권 처리 계획안] 제안 설명

의 장 : 이사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철 이사 : 공사비 중 일정비율(33.8%)을 장기매출채권으로 처리하면 경기CES 영업개시 후 이자지급 등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나요?

의 장 : 안건 내용을 보시면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약 1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렇게 하면 현금흐름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택철 이사 : 자료 검토시에 유가가 배럴당 86달러인데, 어떤 가격 기준입니까?

의 장 : 두바이유 중심으로 국내 도입되는 복합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28달러 였으나, 작년 11월 검토시에는 86달러가 되어 무려 300% 이상 인상되고, LNG 요금도 63% 인상되는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에 많은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도 전력 발전량의 피크수요 완화 등 정책상 필요성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유가에 대해 무작정 방치하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개선책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전원남 이사 : 안건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자금 문제 등 회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양주시 소각열 이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의정부 소각열 사용을 위하여 배관설치 하는 것은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정부에서 소각열 공급에 부정적이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설립시에 순차적으로 입주

전원남 이사 : 하는 단계별로 어떻게 열과 전기를 경제성 있게 공급할 것인지, 소위 임시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공급에 들어가고, 한전에서 수전 받는 방법 등 나름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택철 이사 : 공사비를 장기매출채권으로 투자 4사들이 부담하면, 경기CES가 정상가동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작년 11월 자료 검토시 국제유가가 86달러였으나 현재 13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CES사업 개시가 된다고 해도 정상가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은 사업개시 시점까지 인데, 사업개시가 되어 경기CES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개시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사장님께서도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이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원남 이사 : 첨부물 4에 보시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경기CES 추정재무제표하고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자료가 아니고 유가가 110달러 정도 될 때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주고음CES 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고음CES 팀장 : 건설단계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조달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으며, 신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업개시 이후에 대해서

양주고업CES 팀장 :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개략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08년 1월에 LNG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발전기 가동에 적용되는 CHP(열병합 설비) 요금은 소폭 인상하였으나, 신설된 HOB(열전용 보일러) 요금은 대폭 인상함으로써 중규모 이하의 CES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동시에 판매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이 부족한 부분을 HOB를 돌려서 열을 생산, 판매하게 되면 100%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CES 설비를 준공하고 나서 가동할 때, 운전모드를 열추종 모드로 운전하게 되면 열이 필요한 시점에 발전기를 일차적으로 돌리고 모자라는 부분만 HOB로 보완하여 가능한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스요금하고 열요금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하는 열의 50% 정도는 발전소 폐열을 받아서 쓰고 있어 이런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와의 발전소 폐열 공급계약이 2013년부로 종료되고, 2014년부터 새롭게 계약될 때 부터는 지금까지 저렴하게 발전소 폐열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개선되리라 생각되고, 2014년 이전의 열요금 체계와 2014년 이후의 열요금 체계를 구분하여 경제성 평가를 하였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신이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유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아무런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전제로 작성된

의 장 : 것이고, 말씀 드렸듯이 현재의 가격체계 등을 그대로 방치
(계 속) 하면 어떤 CES사업자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현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전제로 CE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나와서 사업여건이 개선되
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CES사업은 추진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선택철 이사 :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이사회 안건에는 유가가 어
떻게 변하면 어느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정부
보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깐, 이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반론을 제기
할 입장은 아니지만, 오늘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면
경기CES는 과연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어려운 상
황에서 결정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CES가 정상가
동이 가능한건지에 대한 최근의 간략한 보고서라도 있었으
면 결심하기가 편했을 텐데, 작년 11월 86달러를 기준으로
검토한 자료, 삼일회계법인의 1월 경제성 평가 자료를 근거
로 정상가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어
렵다면 어느 정도 정부보조가 필요한지, 경기CES를 정상가
동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언급이 되어야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편할 것 같은데, 안건에는 이 내용만
의결하면 향후 정상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
어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의 장 :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여건상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 장 :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그 지역
(계 속) 주민들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건이 나쁘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영업개시 후 정상가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정상 운영될 것이라라고 예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CE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여건상 어느 업체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본 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중단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공기업으로서 우리회사가 열 공급 시점까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모색해야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가 및 가스요금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기CES 정상가동에 대한 방안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남 이사 : 신이사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CES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격이 이렇게 급등할지 사실 저희 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가 검토한 시점에서는 최대한 유가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하여 현금흐름 등을 분석한 결과 이정도면 경기CES가 정상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의 장 : 유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

의 장 :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유가가
(계 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
면서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남 이사 : 당초 저희가 검토할 시점의 유가를 반영하여 내부수익율
(IRR)이 6% 정도 될 경우 이정도 규모로 운영한다면 경기
CES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였으나, 1~2개월 사
이에 유가가 급등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측의 정확
성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 검토한다
면 IRR을 6%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정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시점에서의 유가로 검
토하지 못한 것은 물리적 제약으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혁 이사 : CES 사업이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로 신문에 보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버렸는데, 이사회 진행상 절차
를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여신승인이 나서 오
늘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신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사
회에 부의할 수 없는 여건으로,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단순
통과절차가 되어버렸는데, 여신승인 나기 전이라도 추진상
황을 선보고 하였다면 이사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회에 부의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CES 사업
이 이익적 측면 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
니다.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 오는

김광혁 이사 : 시점에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자니 적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고, 이런 상황이 CE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직면한 상황인데, 경기CES가 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본이라든지 비용측면에서 적정 이윤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이 100억원인데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담당 강희갑 : 2013년까지는 사업 초기연도로써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때까지의 운영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등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전원남 이사 : 407억원을 차입하는 파이낸싱 규모만 한꺼번에 약정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금리조건 등은 상이하고,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218억원은 15년으로 차입기간이 장기입니다. 여러 이사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기CES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9월까지 송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내년 8월 까지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입주시점까지 가스나 열공급이 안된다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신이사님 말씀대로 최근 급등하는 유가 등을 반영하여 검토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시점에서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한 자료이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CES 이사회에 가스공사 이사가 한 분 계십니다. 김광혁 이사님께는 전달하지 못했지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담당팀장을 통해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으며,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혁 이사 : 경기CES는 영업개시 시점부터 적자를 감안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가능한 최대한 줄이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정부지원을 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비 회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 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CES협의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ES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이사 : 2006년도 3월 22일 이사회 자료를 보았는데, 이때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앞서 두 분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 검토 없이 정부 대책 마련에만 의존해서 본 안건을 의결하라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우려감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결방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원래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모색할 계획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으며, 인수하려는 업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경제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이사 : 출자한 회사들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경기CES는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사장의 급여는 얼마인지 또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 등 자기들의 자구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고음CES 팀장 : 경기CES 주식회사의 인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의 급여는 성과급 포함해서 1억 4천만원 정도 입니다. 경기CES의 자체 원가절감 노력 등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 장 : 경기CES 자체적으로도 경비절감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자료를 만들어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이사 : 상황은 어렵지만, 지혜를 모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웅 이사 : 신이사님 말씀처럼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려면, 대전제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면밀한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이사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 장 : 잘 알겠습니다.

서민웅 이사 : 경기CES 관련한 안건이 이사회에 몇 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오늘처럼 중요한 사항을 한 번에 결정을 하다보니 이사들로서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결안건이 아니더라도 보고안건으로 2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여 주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 장 : 앞으로 경기CES의 진행상황을 가급적이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상정 전이라도 사전 보고하여 이사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웅 이사 : 공기업이라는 성격을 명심하여 감사원에서 중단하라는 지침이 나오더라도, CES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 장 : CES 진행사항을 이사회 안건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님들 말씀대로 앞으로의 여건 변동을 예측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제3호 안건 :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의 장 제3호 보고안건인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 「전회 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보고

의 장 :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의 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이상으로 제127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